

蘇聯 經濟 — Gorbanomics (I)

國際部

對共產圈 貿易에 대한 關心이 高조되고 있는 시기에 現在 Gorbanomics라고 일컫고 있는 소련의 경제 개혁 정책에 관한 Economics誌의 특집 기사를 발췌 번역, 2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장한다. <註>

1. 蘇聯의 자취

Peter 대제에서 레닌에 이르기까지, 현대화를 향한 거국적인 위세는 러시아인들의 특성이 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진정 Mikhail Gorbachev는 그의 나라를 경제적 침체에서 선두 주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Gorbachev 자신의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백만의 소련인을 위해 보다 나은 삶의 희망의 종말인 것이다. 성공한다면 공산주의의 신빙성과 소련의 자존심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즉 더이상 거대한 살상무기를 가진 강대국만은 아니며, 소련은 군사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 초강대국처럼 보이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Gorbachev의 경제개발 게임에서 현재까지 위기는 거의 없는 것처럼 비쳐졌다.

이론적으로 소련은 서독, 일본, 한국에 의해 행해진 일종의 현대 경제적 기적을 본받아 보려는 분

위기가 무르익어야 한다.

이들중 어느 나라들 보다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 전체의 1/4인 1,500만 명의 과학자들이 있다고 관리통계를 포함한 자료에서 밝히고 있고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소련은 약 1,800만의 공무원들(한국의 전체 노동인구 이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람들은 거의 모든 계획을 주도한다.

“관료주의 정치가들을 해고시키고, 창조적인 과학자들과 수백만의 숙련공들을 해방시켜라. 앗!, 현대의 기적은 진행중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Gorbachev는 이런 개혁운동이 단순한 일기기를 바라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Gorbachev는 약속과, 타성 그리고 60년 동안이나 지켜온 주요 경제계획에서 얻은 케케묵은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는 견고한 특권층(권력의 위치에 만족하는 관리들) 이권에 직면하여야 하고 특권층의 권위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통치 이념을 확장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군사적 초강대국으로의 면모를 유지시키는데 과중한 희생을 치루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그의 제국 너머로 내다볼 수 있는 경계의 눈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즉 폴란드, 또는 Azerbajjam은 그의 개혁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이 모든

改革政策의 段階別 計劃

1. 第1段階(1985-1987) — 準備段階

- 금주운동
- 무능력, 부패 공무원 교체
- 품질관리 강화
- 정부부처 통폐합
- 대외무역 강화
- 중소민간기업을 위한 법적용 확대
- 중공업 분야 투자 개시

2. 第2段階(1988-1990) — 經過段階

- 기업의 자율화 달성
- 자체금융조달 및 도매무역 개시
- 생산증대를 위한 연구 개발
- 관료주의 청산
- 가격개혁 개시
- 새로운 제도 연구

3. 第3段階(1991~?) — 完了段階

- 전국가 경제의 새로운 제도 도입
- 연구 및 조정
- 생활수준 향상으로 개발 동기 부여
- 투자의 확대

것을 소련의 체제가 최초의 Khrushchev와 1960년대의 Kosygin의 개혁을 거부했던 소련 특유의 보수적인 성격이 놀랄만큼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왜 그와 같은 개혁이 급격히 필요했는가? 개혁을 주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Gorbachev는 3년전 정권을 장악했을 때 “유산으로 물려받은 위기 상황을” 이어받음에 의해 윤택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퇴폐의 증후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즉 대외정책(미국의 유럽배치 미사일을 중단시키는데 실패한 아프칸 사태)은 엄청나게 부패한 공산당내에서 살고 있는 소련 인구의 수명(특히 일반대중에게는 평균수명이 실제로 낮아지고 있는데 모든 서방

국가들에서는 반대의 현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쁜 골치거리의 경제에 있었다. Gorbachev의 소련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서방 분석가들이 수년동안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 왔다고 말하는 점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Gorbachev는 서방 세계에게 무엇인가를 보여 주려고 애써 왔다.

모든 사람은 소련의 공식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진정한 거짓말이 현재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련 관리들조차도 경제 성장은 1970년대 이후 성장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을 주도하는 지식인들중의 한사람인 Mr. Abel Aganbegyan에 의해 얻은 “더욱 정확한” 평가치는 1980년대 전반기에는 성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소련인구의 연평균 1% 증가라는 것은 보통 소련인이 점차 가난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암시장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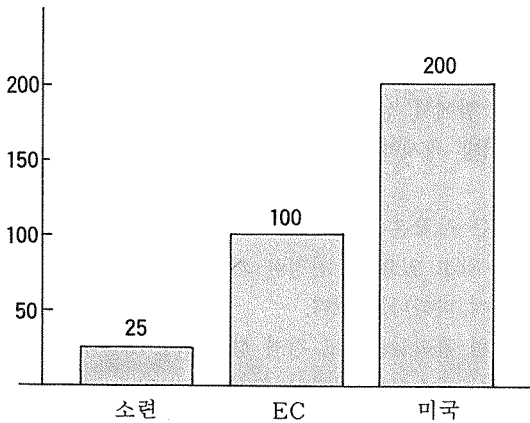
일단 공식 수치통계가 브레즈네프 집권기간 동안에 소련의 원유 수출을 위하여 확대된 보드카 판매와 물가상승 요인을 말끔히 청산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Gorbachev가 더욱 악화된 경제지수에 대해 그의 고위 관리자들에게 최근에 말했다.

이로써 소련은 약 20년 동안 경제성장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Gorbachev는 그의 자신의 업적을 좀더 밝게 선전하기 위해 과거의 오점을 즉시적으로 명확히 묘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의 보드카 캠페인에 대한 성급한 반대는 선부른 역효과를 가져왔다. 즉, 덜마시는 것은 소련인들에게 건강에 이로운 것이지만, 더욱 나쁜 영향을 소련의 경제성장에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Khrushchev가 1961년 후반에 약속했던 것처럼 - 미국을 결코 급속도로 따라갈 수 없음에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한 - 되지 않고 러시아는 급격히 후퇴 일변도에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발생되지도 않았다. 즉 반대로, 자본주의자들은 원대한 이상을 가졌던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결코 꿈속에서도 이를 수 없었던 원대한 기술을 앞세워 날로 상승세

1) 美·蘇·EC 間의 農業 生産性 比較(1987年度)



에 있다.

주요계획은 단순히 현대 경제의 복잡성에 필적할 수는 없다. 수학자인 Kiev는, 한때 Ukroin 사회에서 1년 동안의 생산을 상세히 계획하는 것은 천만년 동안에 전세계 인구를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인상깊게 주장했다.

유명한 서방인은 소련경제가 미국경제 규모의 약 절반이라고 추측했다. 미국의 국방비가 GNP 7%에 비교해 볼 때, 소련 GNP의 약 15%를 국방비에 소모해야만 소련은 미국의 국방비에 필적할 수 있는 것이다. 선진 컴퓨터와 관련기술에서 미국에 7~12년 뒤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진정, 소련은 우주에서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단순 생활 필수품을 대량 생산하는데는 세계의 제 1인자이다.

소련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원유, 미국보다 많은 가스, 일본보다 많은 제철을 생산한다. 그러나 생산량에 몰두한 오랜 강박관념은 소비자가 더

2) 美·蘇 業種別 종사자 분포

(% : 인구대비)

분 야	미 국	소 련
농 업 분 야	3.0%	25.1%
산 업 분 야	20.4%	27.0%
S E R V I C E	58.4%	29.3%
기 타 업	18.2%	18.6%
종 사 자 인 구	107백만	141백만

욱더 부유해지고 선택권이 있음에 따라 문제시되는 품질과 효율성에 자주 소홀해 왔다. 소련의 제품은 널리 알려진대로 재생품에 불과한 것이다. 서방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소련은 생산 1개당 2~3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줄지어 늘어선 소련인은 기록을 깨뜨리는 우주여행에 우주 비행사들을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왜 충분한 치약, 또는 스타킹을 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의아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소련과 서방국들 사이의 기술격차가 크다고 할지라도, 소비자의 격차는 크다.

대부분의 시간을 줄을 서는데 소비하고 있다. 즉, Omsk에 거주하는 한 가정주부는 Omaha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보다 매주 쇼핑하는데에 아마 적어도 6시간 이상을 소비하여야 한다.

개인용 전화기와 좋은 쇠고기는 소련에서 아직도 사치성에 속한다. 퍼스날 컴퓨터는 거의 말초차들 어본 적이 없다.

자동차들은 소비자의 수준격차를 대변하는 좋은 예가 된다.

한 미국인이 소련의 한 사람이 소유한 부에 비해 2배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에 한 서방연구가는 개인의 평균 봉급으로 미국에서 소형의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5개월의 노동이 필요한데, 프랑스, 또는 영국에서 8개월, 그러나 소련에서는 설사 그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행렬이 8년 동안이나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소련인은 기다려야 한다. 그가 결국 구입하는 자동차는 서방세계에서 구입하는 자동차보다 품질이 나쁘고 너무 자주 고장이 난다.

또다른 러시아인들의 좋은 전통인 반성은 지금은 텅빈 자기축복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누가 책임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행하여져야 하는가는 19세기 이후 소련의 과격주의자들에 의해 질문이 되었던 가장 커다란 두개의 질문이었다.

Gorbachev에 의하면 “책임은 스탈린으로부터 레닌이 1920년대 초에 지침을 세웠던 ‘정확한’ 과정을 회피한 Brezhnev에 이르기까지 소련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재빨리 실현시킨 해결책이라는 것은 소련인들의 훈련을 위한 열렬한 캠페인을 벌여야 했으며 부적당하거나 또는

3) 蘇聯의 對 서방국 輸出入 現況(1986년도)

분 류	수 입	수 출
가 공 품	43%	9%
엔 지 니 어 링	31%	4%
소 비 재	7%	1%
오 일	1%	65%
식 료 품	12%	2%
공 산 품	3%	16%
기 타	3%	3%
T O T A L	100%	100%

부패한 정부관리들을 모조리 대체하여야 했다. 당시 당면한 과제이행을 위하여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부패조사는 Gorbachev의 시책이 혁명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척도가 된 것이다. Gorbachev는 경제개발 캠페인이나 부패관리 척결 문제 이외에 그 자신의 세번째 문제를 추가시켜 왔다. 즉, 만일 우리가 아니라면, 누가 하느냐? 이것은 공산주의의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는지 비추었다.

4) 自動車, TV, 電話機 保有現況(1986년도)

(인구 1,000명당 보유대수)

분 류	소 련	미 국
자 동 차	47	560
TV	300	794
전 화 기	90	791

2. 初歩者들을 위한 Gorbachev의 經濟學 - Gorbanomics

Gorbachev 개혁에 대하여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관점에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이해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첫째, 주로 경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즉 부패 조사는 그것이 시발점부터 하나의 혁명인 셈이다.

경제개혁은 결정적으로 정치적 개혁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제기함이 없이 한 문제를 토론

하기는 불가능(본 조사에서 조차)하다. 부패 조사는 것은 경제에 국한시킬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문제를 몰고 오고 있다.

둘째, Perestroika 개혁은 자본주의를 복원시킨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시장경제가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자유시장 경제를 유도시킨다는 것 조차도 또한 아니다.

서방국가에서는 Gorbachev가 “우리들 이웃 중의 한 사람” 즉 비밀자본주의자로 때때로 오인되고 있다.

그렇다, 그는 주로 협동조합 형태로 약간의 사기업을 두기를 원하고 행정부 관리들이 몹시 서투르게 하는 얼마간의 일을 시장이 떠맡도록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련경제는 결국은 공식적으로 사유화하였다라는 몇몇 예외사항을 지닌 채 전체 계획경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지도층의 방대한 조직 - 즉, 모든 국가 위원회와 내각들의 직분 - 을 감량중이나 폐지되지 않고 있다.

Gorbachev는 지방경제 계획을 가진 채 주요 통제를 중앙에 통합하는 체제로 설립하기를 원한다. “불가능하다”라고 냉소자들은 말하나 “지상 명령인 것이고 숙명적인 것이다”라고 Gorbachev는 말하고 있다.

명심해야 할 세제문제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하루 밤에 도입되지는 않으며(1968년 헝가리가 그랬었다.), 수년동안에 걸쳐 도입된다는 사실이다. 비록 Gorbachev가 당에서 별로 탐탁하게 여기고 있지 않고 있는 점과 보수적인 국가가 그로 하여금 빠르게 추진하기를 원하는만큼 빨리 추진시킨다 하더라도, 그는 그의 개혁을 몇 단계로 나누어 도입할 것이다. Gorbachev의 경제 고문인, Aganbegyan은 소련을 개혁시키는데는 20~30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Gorbachev는 그 자신이 앞서갈때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현 상태에서의 개혁은 너무 많은 계획과 너무 적은 시장을 창안할 것 같은 타협안이 있기 때문에 행운인 것이다.

주안점은 관료적이며 딱딱한 행정부의 번덕을 어떻게 건전한 경제개념으로 대체시킬 수 있느냐 하

는 점이다. 특권층에서부터 전달된 일방적인 계획 목표보다는 오히려 일반고객들이 하나하나 수를 세면서 하는 목표설정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국가계획위원회인 Gosplan에 관여하는 관리들과 다스리는 직분을 가진 관료 정치가들은 대전략에 중점을 두고 세세한 간섭을 회피하여야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들 관리들은 공장장과 농부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대로 해라”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그 대신에 “여러분이 잘 생각한 것을 하여라, 그러나 이와 같은 방침들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라고 말하여야 한다.

공장들은 가상적으로 통제하려 하지 않는 “통제 인물들”의 도움으로, 자체 계획들을 세울 것이다.

공장들이 생산하는 것의 일부는 강제적인 “국가 명령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것이나, 점증하는 분배를 위해 일반 고객과 공급자들이 직접, 또는 새로운 도매상을 찾는다는 것은 공장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거대한 공장들 중의 몇개는 해외무역을 하는 권리를 얻고 있다. 이 특별한 자유소유는 특별한 책임을 수반한다. 즉, 공장들은 국가 기부금에 의존하는 대신에 자체 생산 비용과 투자를 망라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자기 자본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집불통인 적자 기업들은 끝까지 버티기조차 한다.

다른 많은 개혁들이 진행되거나 계획중에 있다.

Gorbachev는 원초적 중앙통제 경제체제(소련인들은 수표장, 비자 카드, 실질적인 이율과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공장들의 신용장)를 분산시키기 시작했다.

임금개혁은 노력과 숙련의 보상에 목적을 둘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도 매우 어려운 문제는 소련의 엉망으로 뒤틀린 가격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만일 새로운 경제구조가 운영된다면 필연적인 것이다.

소련인들은 좀더 일을 잘 하도록 충고받고 있으며, 몇몇은 집단으로 함께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기대할 것이다.

소련 관리직 직위를 가진 사람들중 절반인 적어도 6만명이 1990년까지는 다른 직업으로 옮겨져

야 한다.

금세기 말까지 소련정부는 스페인 전영역에 있는 수 만명인 약 1,600만명의 고용인들이 공장들의 감량 경영과 근로자들이 아직 소련에서는 서비스업으로 공장산업을 바꿀 때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모든 이 변혁의 요점은 경제에 더욱 많은 원료들을 투입하는 “확장 일변도” 방법으로는 더 이상 성장시킬 수 없는 소련경제로부터 잉여생산을 산출하는데 있다.

노동인구는 과거 1945년의 baby boom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데 현재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유럽지역의 소련의 천연자원들이 많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황량한 시베리아에서 천연자원들을 비싸게 채굴하여 수송해야만 한다.

즉, 특별생산보다는 에너지 절약을 함으로써 1톤의 오일을 얻는데 소련은 현재 적어도 2배로 값이 싸게 먹힌다.

경제성장은 생산성 증진에서 주로 유래되는데 미래에는 생산성 증진을 “촉진”시켜야 한다. Gorbachev는 좀더 나은 조직의 도움과 새로운 기술에 집중투자함으로써 실질 국민소득이 1985년과 2000년 사이에 2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이같은 운동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Gorbachev는 엔진이 아직 수리중인데 가속페달을 상하로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장들을 새로운 경제체제에 적응시키고, 제품의 질과 기술혁신을 달성한 공장들은 새로운 경제체제에 적응시키고, 제품의 질과 기술혁신에 전념하라고 명령받을 때 단번에 생산을 재빨리 확장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Gorbachev가 추구하는 개선방안들은 성장도표(주장한 2.3% 성장이 계획된 4.1%에 훨씬 못미치는 1987년도처럼)에서 일시적인 하락을 초래하기조차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소련은 만일 소량을 생산하더라도 품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더욱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소련이 미국이 생산하는 량의 3/4을 힘겹게 생산하여 업계에 공급하기 위해 미국의 제철생산의 거의 2배를 일괄 생산한다.

소련은 1년에 어느 다른 나라들보다 많은 신발을 8억 켤레 생산하나 소련인들이 수입된 신발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이루었던 것처럼 품질과 스타일에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Gorbachev의 계획에 차질을 빚은 또다른 사항들은 그의 지지자들조차도 회의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Gorbachev가 산업을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진정 용기있게 산업을 개혁할 수 있고 실업을 막을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의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해서는 공장자체가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점과 각 업체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적절히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장의 정부관리에게 확신시키는 책임성 사이에는 논란이 있어 왔다.

Perestroika 개혁은 Gorbachev 계획이 실행된 이후 “두번째 단계”로 현재 접어들었다.

국영 기업의 법률, 즉 경제개혁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지난 6월에 없어졌고, 금년 초부터 모든 공장들 중 약 2/3가 자기자본화가 되었다. 즉 나머지는 1989년에 바뀌어질 것이다.

가격개혁은 1990~91년도에 있을 것으로 예상상태에 있다.

이 아이디어는 1991년도의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출발을 위해 전반적으로 새로운 체제로 대체시키는데 있다.

다음 2~3년에 걸쳐서는 구체제로부터 새로운 체제로 옮겨가는 과정이 특히 복잡해질 것이다.

공장들이 만일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물건을 생산해 낸다면 자기자본화로 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구체제 법률하에서는 계획된 높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업체들이 자체 계획을 위한 어떠한 여유도 결코 주지 않는 국가 명령에 따라 거의 100% 생산에 전념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소련인들은 새로운 체제의 불확실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전념하기보다는 구체제의 비효율적인 편안함에 집착하는지도 모른다.

Gorbachev는 계획을 추진하기 이전에 합의의 해야 하는 Perestroika(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세

부사항들을 기다릴만한 여유를 가질 수는 없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요란한 야단법석에도 불구하고 만일 소련인들이 많은 변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Gorbachev의 개혁들은 다음 20~30년에 걸쳐 그의 신빙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 체제가 외국산 화장지(tissue)를 수용하지 않는 것처럼, 중앙집중적 개발 계획은 개혁을 거부하는 불행한 역사를 또한 갖는 것이다.

Gorbachev는 그의 엄청난 개발에너지들 중 하나인 인간조차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소련체제하에서는 개혁이라는 과제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변화를 위한 압력은 상하로부터 가해지기 때문이다.

3. 人民들이여 나를 따르라

“넓은 사상을 가진 지성으로는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Yevgeny Yevtushenko 시인은 불안하게 쓰고 있다. Gorbachev는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새로운 방법으로 소련인들을 생각하게끔 가르친다는 것은 아마 그의 가장 큰 도전이다. 소련인들은 어떻게 일하는지를 망각했고, Gorbachev는 그의 국민들에게 소련인은 독립적 사고에 익숙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의 국민들은 책임이 아닌 명령에 익숙하다. 중앙의 계획을 약화시키는 제3세대는 희생되어 왔다.

왜냐하면 오늘날 새로운 기술투자의 결실을 얻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며, Gorbachev는 생산성에 있어서 대부분의 초기 이익은 일을 잘하는 국민들로부터 발생되어야 한다고 바라고 있다.

Novosibirsk 출신인 사회학자 Tatyana Zaslavskaya는 “인간요소”라고 그녀가 칭한 중요성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킨 사회학자이다. 그녀는 소련체제는 현대 경제를 위해 일종의 나쁜 인간상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선진기술은 관리와 책임을 요한다. 즉, 소련인들은 무관심과 무질서의 경향이 있다. 극한 경우에, 그 결과는 파국

이 될 수도 있다. 즉, Chernobyl 사태는 인간오류에 있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Mrs. Zaslavskaya는 무엇이 소련인들을 괴롭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한 소련의 최초의 여론조사 기관의 장으로 현재 재직중이다.

소련인들의 일하는 태도는 보통 부지런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서 사회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맨 먼저 관료주의를 청산해야한다(접수위원의 한사람이 다음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모스크바의 Cosmos Hotel 안에서 한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도 있었다.)

보다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만 해서 얻는 봉급과 특별 노력에 대한 상여금사이에 거의 차이점이 없다고 믿는 것이다. 즉, 일부러 열심히 일해 고통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의문시 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도 경제개발계획에 중요하다. 일에 대한 도덕적 관념은 소련 전체 국민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

소련의 15개 공화국 중 아마 가장 부유한 Estonia는 경제개혁 계획이 나머지 공화국들에게 도입되기도 전에 변화를 시험하는 개혁을 주도하는 빠른 길에 들어섰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금년에 소련의 전 공화국은 행정부의 공급할당제도에서 겨우 도매 무역체제로 바뀌었는데 이 운동은 도처에서 시작 초기단계에 있다.

자유경제 국가인 핀란드 사람들의 최초의 사촌간인 Estonian 사람들은 타공화국 사람들과 다르다는 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즉, Tallinn 市の 택시기사는 소련령에 소속된 도시밖의 dachas 사람과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에스토니안 사람들은 당연히 경제개혁을 할 것처럼 보이고 Gorbachev가 시행하는 경제개혁보다 더 빠르게 경제개혁을 이루기를 바란다.

남부지방 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지만(만일 공식통계를 믿는다면), 암흑 경제에 그들의 많은 정력을 소비했다.

최근 서방에서 해외 망명자의 한 연구에 의하면, Armenian들은 자신들의 정부에서 일을 해서 버는 돈보다 거의 2 배에 달하는 돈을 사업을 해서 벌고

있다고 한다.

분명 Armenian들은 개발계획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Gorbachev의 관심은 민족주의자들의 불평들이 충만한 도시거리로부터 Armenian들을 때롱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어떻게 하면 이들의 온갖 에너지를 합법적인 경제개발에 쏟게 하느냐 하는데 두고 있다.

타성에 몰들어 있는 병약한 현상을 치유하는 문제는 소련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러시아 공화국 쪽에 있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Gogol 또는 Goncharov를 읽었다면 타성이란 것이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확실히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만일 불안한 사회안정(즉, 국가는 직업, 주택, 교육, 건강을 제공하는데) 수준이 충분치 못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것은 풍부하다는 뜻이다. 그런 느낌마저도 없다면 불평이 있을 수 없고 풍부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내는 것이다. 동기유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Gorbachev의 답변의 일부는 상당히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소련인들에게서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여러해 동안에 통상적이고 습관적으로 정부 명령대로 일을 해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모두 잘못되었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생산하는 모든 공장 제품이 품질이 표준이하라고 Gospriemk 출신의 품질 통제관들이 발표하면서 게다가 봉급을 삭감 당한다면 특히 유쾌할 리가 없다. 소련 국민들은 술에 대한 음주단속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몇몇 소련인들은 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과 그들의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개혁에 대한 반대 의견은 Gorbachev가 처음에는 대부분의 지도자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주제넘게 나서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관료주의 이상으로 강력했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Gorbachev는 어떻게 자기편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을까?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Glasnost 개방정책은 Gorbachev 배후에 지식인들을 배출하였다. 예를 들면, 비교적 원하는 것

을 읽고 말하는데 많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인 작가, 예술가, 과학자 등. 소련의 비능률성에 대한 솔직한 시인은 역시 급속한 개혁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임금개혁은 임금개혁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숙련 근로자들에게는 인기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비숙련 공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다.

Gorbachev는 결정을 함에 있어 보다 많은 대중이 결정에 참여하는 즉 “민주주의화”의 중요성에 더욱 집착한다. 국영기업에 대한 그의 법률은 근로자들이 그들의 공장 매니저들을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장관이 임명을 재가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헝가리에서는 비슷한 운동의 결과가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민주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같은 사회변화는 Gorbachev에게 꼭 필요한 국민지지를 가져다주지는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소련인들에게는, 개혁의 실질적 테스트는 상점앞의 행렬이 짧아지고 있는지와 가게에서의 상품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4. 원하는 대로, 동지들

“줄을 선다는 것은 멋진 것이며, 줄을 선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할 일을 준다”라고 한 소련여성은 비꼬면서 말한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Gorbachev는 매우 훌륭히 일해오고 있다. 왜냐 하면 상점 앞에서 줄을 서는 길이가 상당히 길어져 왔던 것은 사실이다

가장 주된 이유는 금주운동이다.

소련의 주류상들은 현재 1984년도에 팔았던 술의 반도 안되는 양을 판매하고 있다.

오후 2시 정각까지 기다랗게 늘어서 있는 소련인들은 술집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가게문들이 열렸을때는 목불인견의 소란스러움이 벌어진다.

러시아의 기독교 개종기념의 해인 금년에 Gorbachev는 그의 국민들이 보드카를 지나치게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애석하게 여길 것이다. Uladimir는 러시아인들이 결코 Islam의 금주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00년전에 기독교를 선택했다는 전설이 있다.

금주 단속의 역효과는 술대신에 다른 물건을 사려는 행렬을 길게 늘려는 결과가 되었다. 소련에서 술 판매는 드물게도 소매거래의 커다란 점유를 설명해 준다. 영국의 5%에 비교해 볼 때 1984년에는 16%이다.

Gorbachev가 정권을 잡았을때, 소량의 물품구입에 엄청난 소련 화폐가 소비되고 있었다.

1971년과 1985년 소비자 물품 생산량이 2 배로 늘어난 대신 소련 총 통화량은 3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소련인들은 현재 보드카 구입에 소비하지 않고 있는 수십억의 돈을 회수하기 위한 특별 소비제를 정부가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왔다.

소련인들은 현재 1984년 보다 32% 증가한 2,670억 루블을 저축성 예금구좌에 가지고 있으며 이는 소련의 연간 국민소득의 45%에 해당하는 돈이다.

얼마나 많은 돈이 현금지불이 가능한 상태로 예금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Gorbachev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투자방향을 잃은 돈들이 암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 Gorbachev 자신이 이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억압된 인플레이 가능성은 만일 가격통제가 느슨해져 있을때 (가격 통제는 개혁을 위해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 이는 몇몇 경제학자들이 Gorbachev에게 결국 광범한 화폐개혁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PlanEcon 즉 워싱턴에 주재하고 있는 연구단체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술 판매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발전했고 Gorbachev는 “광범위한 소비자 반란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이다.

개방정책은 소련의 보건위생사업의 빈약한 상태와 길게 뻗은 교통체제에서 빈번한 사고를 자아내

고 있다.

소련인들은 자동차나 냉장고를 수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재빨리 말할 것이다. 주택 조건들에 대한 소련인들의 불평이 가장 큰 것이다.

Gorbachev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물가개혁은 사람의 행렬을 줄일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매우 민감해서 최소한 2~3년 동안 물가 개혁은 연기되었다.

서방국가들로부터 많은 소비제품의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수입제품을 가게에 쌓아 두는데 도움을 줄 수는 없으나, Gorbachev는 실제로 외화 사용에 대한 염려(1970년대 OPEC가 오일가를 인상함으로써 소련도 덩달아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던 때라면 개혁은 더욱 용이했겠지만) 때문에 이들 수입을 실제로 감축해 오고 있다.

공장들은 주요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소비자들에게 단순히 생필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Gorbachev의 요구에 하염없이 응해 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해에 생필품의 질에 있어서 “눈에 띄일 만한 나아졌다는 점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Gorbachev는 주장하고 있다.

소비제품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문제는 어떠한가? 문제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또다른 분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군비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시베리아의 기계류 산업개발 문제 등이 이런 것 들이다.

1985년 정부는 금세기말까지 소비품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세부개발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소비제품의 생산(식료품은 제외)은 2000년대까지 1985년 수준을 상회하는 80-90% 성장으로서 대체로 전체 경제계획 성장률 보다 낮은 성장인 것이다.

동 계획에 의하면 조그마한 예를 보더라도 소련이 서방세계를 따라 가려면 얼마나 험한 길을 가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1990년까지 소련의 VCR의 생산은 60,000대로 기대되고 있다. 즉, 미국의 VCR 업계 예측에 의하면, 1990년에 미국내 VCR의 판매는 1,200만대에 도달할 것 같다고 한다.

5. 레닌의 시대로부터 유래

모든 국가들의 천연자원이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Gorbachev는 레닌시대를 회고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가 1920년도 초에 혁명의 소용돌이에 있을 때, 레닌은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제한적이나마 사기업을 얼마간 허용하는 것이었다.

Gorbachev는 이데올로기의 특성을 위해서 이것을 개인기업, 또는 협동조합이라고 불러야 한다 할지라도, 이 두가지 명칭의 기업이 하는 일은 똑같은 것이다.

이것이 Gorbachev의 생각의 일부에 불과할 뿐 아니라 비록 그것이 분명한 아이디어의 일부분일지라도 불법적(통제할 수 있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인 것이다. 1986년 사기업을 합법화시키는 조치들중에는 개인택시 운행과 셋방을 놓는 것까지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되었다. 소련은 현재 “개인의 노동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Individual-chiki가 약 30만명에 달하고 있다. 15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1만 4,000개의 협동조합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사에서부터 열쇠 제조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종이 총망라되어 있다. Gorbachev의 경제수석 고문 중의 한사람인 Leonid Abalkin은 10년이 지나면 “개인” 기업은 국민소득의 약 4%를 협동조합은 10%~12%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1986년에 미국 청중들에게 말했다.

그같은 수치들은 바로 지금 매우 낙관적으로 보이고 있다.

1987년 12월, Prauda (소련 기관지)는 협동조합들은 소련 전체 소비제 제품과 서비스의 0.04%에 못미치는 수준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남김없이 셀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소련의 몇몇 지역에서는, 사기업의 합법적 창업이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면서 시작되었다.

Estonia라는 기업의 형태는 협동조합 형태를 집중적으로 본딴 것이며 협동조합을 위한 생활의 터전인 것이다. Tallinn市에서는 요즘 약 500명의 개인 택시 기사 덕택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 모스크바에는 몇몇 멋지고 새로운 협동조합 식당들이 있으며, Izmailovsky 공원에는 가

내 수공품을 파는 인기있는 주말시장이 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기업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의 법들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사기업체는 주로 연금수령자, 가정주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즉, 다른 직장인들은 사적 분야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할 수 있으나, 국영기업의 직장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는 지방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얻기가 힘들고 일상 생활필수품 공급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협동조합은 부족한 인력과 물품을 해결하기 위해 국영기업체들과 경쟁자로서 나타나곤 한다.

또한 협동조합은 업체로부터 조세를 받아내고,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할 뿐 아니라 기존의 기업인들도 가혹한 세금부과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세금인 것이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돕기를 원하더라도 아무도 협동조합을 돕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인기있는 협동조합의 브티크 상점 점원은 말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실로 모순 투성이다. 협동조합의 요원들은 국영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하며, 그들이 수행한 일들은 국영기업보다 훨씬 낫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반대성향은 여전히 강하다. 많은 소련인들은 협동조합의 요원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는 동안 길게 늘어진 국가에서 공급받을 수 없거나 아니면 소량의 배급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Gorbachev 자신도 최근에 “공공연하게 자금을 끌어 모으는데 몰두하여 자금부족 현상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사게 되었다.

그러나 Gorbachev는 소련의 미래는 협동조합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굳게 믿고 있다.

물가 인플레이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지난달 협동조합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법을 도입할 때 협동조합의 수와 건전한 경쟁을 증대시키는데 있다고 민감하게 말했다.

공급부족을 개선하는 방법은 분명한 투자와 조직

의 개선 그리고 사기업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선은 Gorbachev가 필요로 하고 있는 개혁을 위한 일반대중의 절대지지를 얻기에는 너무 느린 속도로 진행된 것이다. 속임수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일상 필수품 공급원이 농장이라는 말인데 농장이야말로 소련의 유명한 비능률이라는 말의 대표격이다.

다음은 후루시초프와 헝가리 지도자 Janos Kadar 사이의 회의에서 헝가리가 헝가리 농산물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문제를 토의 할 때 나온 이야기이다.

Khrushchev는 “Kadar 당신은 어디에서 식량을 얻을 것이냐”고 질문했다. Kadar씨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헝가리가 정책변경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식량을 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헝가리의 농정개혁은 의문점을 자아냈다.

Gorbachev는 만일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좀더 일찍이 알 수 있다면 그의 농부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 것이다.

이는 그의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즉, 소련인은 하루 평균 스웨덴 사람이나 일본인들이 소비하는 평균칼로리 양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인들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공급을 정기적으로 받기를 선호하고 있으며, 더 많은 육류를 먹기를 원한다.

헝가리와 중국은 산업을 재정립시키기 훨씬 전에 농업개혁을 시작했다. 이 개혁형태는 의미있는 것이다. 즉, 근로자들은 여하한 추가적인 노력도 하려들지 않는다.

Gorbachev는 농업과 산업을 동시에 개혁하려고 하고 있다. 아직도, 농업의 개혁은 가장 빠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농업의 개선은 2~3년내에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Gorbachev는 믿고 있다.

그는 1987년 6월에 소련은 농업생산에서 괄목할만한 개선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당중앙위원회에서 말했다.

농업은 확실히 너무나 낙후되어 왔다.

소련의 농업보조금은 EC의 농업보조금 조차도

주머니 돈 같이 보일 정도로 그 액수가 컸다. 그리고 EEC가 농업부문 과잉생산에 대하여 유럽통화 기준 화폐(ECU)를 지불하는 반면, 소련은 목표를 미달한 농업부문 생산에까지 루블을 지불한다. (소련은 EEC가 보조금을 대어준 버터와 쇠고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을 소비하고 있다)

소련의 세계경제와 국제관계를 다루는 보도기관은 최근 소련이 모든 서방국가와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은 2,400만 이상의 농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련의 농업 생산량은 서방국가들의 농업생산량의 22%에 불과하다.

한편 소련의 노동 생산성은 서유럽의 1/5이며 미국의 1/10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이 되풀이해서 날씨가 나쁘기 때문에 불운이라고 책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농업이 스탈린 치하에서 강요된 중앙집권제로 재기불능이 될 정도로 방치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적어서 재기할 수 없다고 적은 투자를 나무란다고 될 일인가? 모든 소련의 투자중 1/3이 현재 모두 농업에 소비되고 있다. 소련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트랙터의 4 배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의 트랙터는 잦은 고장이 나고 있지만 트랙터들이 단순히 품질이 나쁘고 부속품이 절대부족하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운전미숙에서 오는 이유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경이 두서없이 조직되어 있다는 점이다. 농경정책 입안자들은 무엇을 언제 어디에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지 지역풍토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농부들에게 지시만 한다. 농부들은 농사를 지어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생산량을 농경지로부터 얻지 못하고 있다.

Gorbachev는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있다. (Gorbachev가 당 지도자가 되기전 농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위원회의 요원으로서 6년을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는 농업은 정부 투자의 많은 몫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솔직히 말했으며, 또한 그는 시베리아의 강물의 수로를 사막지역인 남부로 바꾸어 놓겠다는 거대한 모순 투성이의 Project를 취소시키게 되었다.

Gorbachev는 많은 돈을 헛되이 소비시키는 부적절한 기초산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사용되는 많은

자금으로부터 미래의 농업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

지방은 소름끼치는 도로포장률 20% 이내와 불충분한 운송기구(소요량의 절반정도) 그리고 창고시설 부족이 심각한 지경이다.

수확된 채소의 1/3 수준이 들판이나 트럭, 또는 철로길 옆에서 부패되어가고 있다.

Gorbachev는 전반적으로 농업을 재개편하고 있다.

우선 그는 1985년도에 농업관련 6개 부서를 하나의 새로운 Gosagroprom이라고 하는 강력한 농업부서로 통합시켰고 이 과정에서 과거 6개 부서에 근무했던 인원을 47%나 감축시켰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부서 상호간의 협조하려는 자세가 부족한 관료주의를 타파하자는 것이었다. 즉 농경지에 비료공급을 책임지는 A 장관은 이 비료를 뿌리는 기계를 확보하지 못한 B장관에게 무조건 비료 공급을 하는 식의 부조리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대폭적으로 개혁을 했던 것이다.

Gosagroprom은 그 자체가 내부 관료주의에 대한 무서운 위협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비료공급을 책임지는 하나의 장관을 포함하여 수개 농업관련 장관들은 각각 별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Gosagroprom이며 아마 개선될 전망이다.

지방외곽에서는 부서간의 관료주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또다른 시도로서 RAPOS의 설립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RAPOS는 농장들이 자신들의 임의 결정을 하려는 노력을 직접적으로 방해만 하는 또다른 차원의 관료주의 층을 더 보탠 것이었다.

RAPOS는 정부대표들, 즉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회장급으로 구성, 이끌어간다.

현재 협의중인 또다른 방법은 RAPOS를 집단농장의 長(Kolkhoz)으로 협동조합의 長을 삼는 것이다.

지방의 식료품의 자금자족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 식량 자금자족 정책은 소련이 과중한 운송체제의 부담을 덜기 때문에 설사 이 자금자족이 얼마간의 경제규모에 있어서 손실을 의미

한다 할지라도, 소련에서 이 아이디어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농장자체의 운영은 점차적으로 독립적인 자금조달을 해야 하고 관주 도덕적인 계획목표 설정은 급격히 감소되어가고 있다.

정부관리들은 자체 자금조달 능력은 농장으로 하여금 꼭 필요한 장비만을 구입하는데 민감하게 할 뿐아니라 1988년도에는 늘 통상적으로 구매하던 콤파인 수확기의 수보다 33%나 감소한 수확기를 주문했다고 밝히고 있다.

농산물 증산 촉진책으로서 농장들이 (이론상으로는 적어도) 과일과 채소들에 대해 계획된 생산량의 30%를 판매 허용하고 있을 뿐아니라 추가로 국가 목표량의 초과 생산분까지도 고가로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미있는 체험이 Estonia 市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농장들 중에는 정부로부터 전과 동일한 정부지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농장들도 있고 농업장비, 비료 등을 위한 보조금의 형태보다는 생산품을 고가로 매입해 줌으로써 댓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동정책은 손실을 내는 농장보다는 증산을 하는 농장들에게 보조금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Estonia의 경제기구 의장인 Mr. Rein Otsason에 의하면 Estonia 사람들은 소련에서 처음으로 토지임대료는 토지의 질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급격한 농업생산 증가는 농민들 자신들에게 진정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보상을 하는 제도 자체에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며 중국이 단순히 농부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해 줌으로써 얻었던 성과를 보듯이 이 제도의 결과는 대단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제약에도 불구하고, 소련에서조차도 개인 소유 농장에서 전체 농산물의 1/4을 생산하는데 그 농지 소유면적은 전체 농지의 3%에 불과하다.

3%로 적어도 농업 생산량의 1/4을 생산하여 왔다.

6. 農者 天下之大本

Gorbachev는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동기를

를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공공연하게 개인 농장의 증산 시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집단 농장들이 많은 가축들을 보다 살찌우기 위하여 그들 집단 농장의 회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매회마다 가축의 숫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는 비록 농토가 황폐되어 있다 할지라도, 도시민들이 여유시간에 식량재배를 원할 때 도시 거주민들에게 유희지나 농경지의 사용허가를 증대시키고 있다.

Gorbachev가 가장 좋아하는 논리는 위와 같이 함으로써 수많은 형태의 농경지의 약 60%가 재배를 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농토가 계약재배를 위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집단 농장 계약 체제하에서는 일단의 농부들이 필요한 자원을 배분받고 의도하는 바 대로 자체의 작업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결과로 얻어지는 댓가를 지불받게 되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은 몇가지 경우에 지대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농지 계약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가식적으로 행하여졌기 때문에 농민들은 지시받은 바 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상사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소련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소련의 만성적인 식량부족사태로 인하여 KOLKHOZ(집단 농장長)은 농민들과 협상할때 일체의 호의를 베풀 수 없었으며 또한 약속한 식량 공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집단 농장의 농지 계약 행위는 너무 깊이 만연된 상태여서 수많은 부농으로의 환원을 두려워하는 강경론자들의 취향에 길들여져 있다.

부농(Kulaks)들은 스탈린 치하에서 숙청된 농민들로 이들의 환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Gorbachev 자신도 이와 같은 새로운 농지 계약문제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그는 가족단위의 농지 계약행위가 바람직하다는 것과 농민들을 지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수시로 말하고 있다.

몇가지 새로운 시도가 농민을 위한 토지임대 문제와 농기구 임대제도를 위해 시도되었다.(집단 농장長은 생산량의 일정량을 쿼타제로 수거하고 나머지는 농민들 소유로 하고 있다.)

그 결과는 노동생산성이 국민 평균 생산성의 10

배로 늘어나는 팔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소련내에서는 아직도 찬반의 논란이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중국의 녹색혁명 초기 단계에 소개된 시책들과 흡사하며 이 제도는 집단 농장체제의 붕괴를 유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소련도 집단 농장제도가 붕괴되고 있는 와중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세계 사회주의자 체제의 경제기구의 의장이며, Gorbachev의 측근인 경제고문실의 멤버인 Mr. Oleg Bogomolov씨는 “우리는 단순한 모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소련 농장들이 중국보다 더 크고 중국보다 더 많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집단 농장장은 중공이 소홀하게 다루었던 정지사업이나 관개보수나 식량 저장 문제 그리고 농토의 황폐화 되는 것을 막는 일 따위를 개선시키고 농토 개량 사업같은 것을 위한 충분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정부투자 시책도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Gorbachev가 농업 개선책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창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재 심의 중인 법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장을 공장처럼 다루는 대신에 그는 농장들이 진정한 협동조합이 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일단의 농부들이

나 가족이 각기 재정적인 자립을 바탕으로 농장에서 농장경영주 측과 계약에 의거하여 함께 일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소련은 Kadar가 헝가리에서 발취한 개혁을 향해 진일보 할 수도 있다. 다시말해 시장을 통해 거의 모든 농산물을 분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고위 정치지도자의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까지는 농장개혁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고위 정치지도자의 결정이 지나치게 지연되어 왔다. 이 문제가 결국은 논란의 대상이 된 농장개혁 문제를 승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농업위원회 회의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과거 2년에 걸쳐 실시된 농장개혁 시책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Gorbachev의 개혁정책을 별로 고무시키지 못하였다.

1986년에 2억 1,000만톤의 식량 수확량은 7년 동안에 가장 많은 수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의 수확량은 계획량에 못미치는 2억 1,100만톤 (목표는 2억 3,200만톤) 이었고 전체적인 농산물 생산은 다소 감소하였다. Gorbachev는 소련의 산업현대화 시키는 어려운 목표를 위하여서도 보다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자신의 개혁시책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 “도약”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號에 계속〉

